

투데이 칼럼

부안의 신비, 베를린을 물들이다... ‘고섬섬’ 이 전한 K-컬처의 힘

전북 부안의 작은 섬에서 파여난 한 편의 무용극이 독일 베를린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것도 세계 음악인들이 선망하는 무대,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에서였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북의 문화와 한국적인 정서를 세계에 전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지난 7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이 창작무용극 ‘고섬섬’을 들고 베를린에 왔다. 이 공연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었다. 슈타츠오퍼는 유럽 클래식の本산이자 세계적인 공연장이며,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다. 그곳에서 한국의, 그것도 전북의 지역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무용극이 관객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고섬섬’은 부안 위도의 옛 지명에서 출발한다. 고슴도치처럼 나무가 우거져 ‘고섬’이라 불렸고, 이 곳은 교려와 중국을 잇는 해상 교역로이자 장보고의 무역길이 지나던 역사의 섬이다. 과거 수천 척의 어선이 드나들던 조기의 황금어장이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바다의 평온과 만선을 기원하며 ‘위도 따뭇놀이’라 불리는 대리원당제를 이어왔다.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년 음력 1월에 정기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적으로 열리고 있다.

무용극 ‘고섬섬’은 이 풍부한 역사와 설화를 토대로 창작되었다. 칠산바다와 바닷길, 원당 마누라, 그리고 풍어제를 중심으로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춤으로 풀어냈다.

무대는 섬의 형상을 닮아 섬과 바다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위도의 풍경과 바닷이 안무와 음악에 녹아들었다. 신화와 현실, 삶과 자연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정한(情愴)은 아름다운 몸짓으로 되살아났다.

이 작품은 2023년 12월, 국내 초연에서 이미 “동양적 서사와 감성이 조화를 이룬 수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2024년 10월 전주 무용극이 정식으로 공연되었다는에서도 초청되어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마다 감동은 확산되었고, 마침내 유럽의 관객들과 만나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유럽 공연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위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다.

공연은 단지 문화 교류의 차원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메시지로 기능했다. 전북도는 현재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국제적 행보를 강화 중이다.

이 공연은 전북의 문화 역량과 브랜드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는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지방 예술단체가 만든 창작 무용극이 정식으로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작품의 예술성과 기획력이 세 계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동

시에 지역문화가 가진 힘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공연을 관람한 김정기 도의원은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실감된다”며 여운이 공연이 끝난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전북의 설화가 베를린 무대에서 예술로 꽃피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렇다면 유럽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야기의 힘이다. 익숙하지 않지만 묵직한 울림을 지닌 전북의 지역 서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용과 음악, 무대 미장센(영화나 연극에서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의 조합)으로 풀어낸 완성도 높은 연출. 이 모든 요소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동을 전했다.

고섬섬은 단지 전북을 알리는 작품이 아니다. K-컬처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문화의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다. 대중문화에 머물렀던 K-컬처가 이제는 무용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전북을 주목하고 있다. 고섬섬은 그 시작일 뿐이다. 전북의 문화예술이 앞으로 더 많은 세계 무대에 올라 한국의 깊고 넓은 문화 자산을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제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질서, 무엇부터 시작할까

생활질서 확립은 경찰과 행정기관만의 몫이 아닙니다. 일상 속 무질서를 발견하고, 직접 개선에 나서는 주민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질서는 ‘누군가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야 지속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주민 참여 모델이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의 등꽃길 교통지도,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 청소년 봉사단의 쓰레기 줍기 활동, 마을 이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하천 주변 정화 활동 등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는 작은 실천들이 공공의식을 높이고, 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문화입니다.

마을 회관을 이용한 뒤 정리정돈을 하고 나오는 습관, 비 오는 날 이웃 집 앞까지 밀려온 쓰레기를 슬쩍 치워주는 배려, 농로에 차량을 세울 때 다른 차량 통행을 고려해 한쪽으로 바짝 대는 센스.

이처럼 생활 속 질서를 지키는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질서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질서는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실천이 모일 때, 우리 동네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설범근순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경찰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방글라데시 7월 봉기 1주년



5일(현지 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국기를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7월 봉기’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로 시작된 학생 시위는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반정부·반독재 투쟁으로 확대됐고, 8월 5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점령하면서 당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퇴진해 인도로 망명했다. ‘7월 봉기’는 방글라데시 현대 정치사에서 최대 규모의 반정부 봉기로 평가받는다.

사설

에너지 고속도로 케이블 경쟁 본격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수주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선업체 양대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요소인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캐파)을 일제히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해저케이블 공장 내 5동을 준공하고, HVDC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했다.

대한전선 역시 HVDC 해저케이블 생산이 가능한 당진해저케이블 2공장 1단계 건설에 497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내 1단계 공장 착공에 돌입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해저2공장 1단계가 가동되면 해저1공장 대비 약 5배 수준의 캐파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케이블공장과 솔루션공장 및 해저1·2공장

등 대한전선의 국내 모든 생산 인프라가 당진에 집적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선업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교류(AC)가 아닌 직류(DC)를 통해 송전하는 방식으로, AC 대비 손실을 30~40% 가량 줄이면서도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장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장거리 송전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다, AI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증가로 더 많은 전기를 보내야 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HVDC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 HVDC 해저케이블 시장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리드하는 구조다. 이번 경쟁이 사실상 업계 1위를 결정할 수 있는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없는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11차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구속 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출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다. 곧이어 다른 이유도 났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이미 진행 중인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포섭돼 ‘이중 구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어렵고, 위헌적인 특검의 공소유지가 해소될 때까지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그것도 한 시간 일찍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자신들은 계속 재판에 임하겠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굴석 재판’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1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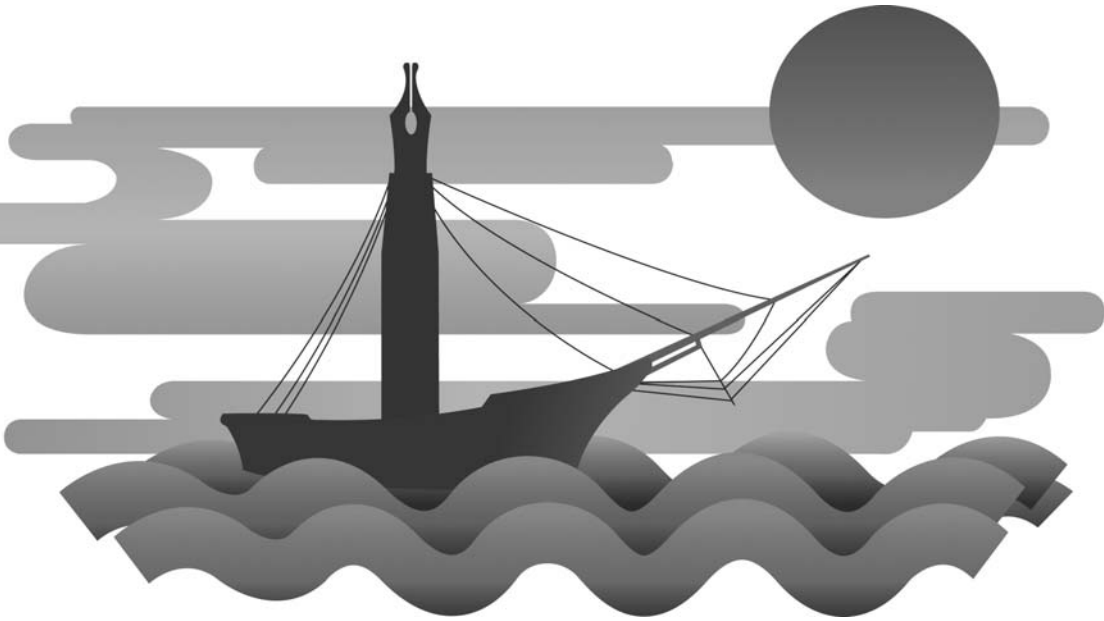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재판은 한 달 넘게 사실상 중단됐고,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없이 이뤄졌고, 2021년 징역 20년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 동안 재판을 ‘보이콧’했다.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자, 재판부는 “그 때는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해서”라며 선을 그었다. 보이콧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출정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